

작/연출: 차연서

1부 <아홉 목숨> — 퍼포먼스: 배선희

2부 <부활하신 어머니> — 번역 및 낭독: 손나리
발췌 시: 김언희, 「저 고양이들!」 외 28편,
실비아 플라스, 「레이디 라자러스」 외 9편

김언희

1. 저 고양이들!

2. 여섯번째 기도

3. 버퍼링

4. 푸른 고백

5. 낙, 낙, 낙

6. 피에타 시뇨레

7. 거품의 탄생1

8. 거품의 탄생2

9. 호랑말코

10. 문장들

11. 양순음

12. 음림

13. 후렴

14. 아주 특별한 꽃다발

15. 꽃다발은 아직

16. 피치카토

17. 태어나보니

18. 시, 혹은

19. 랄랄랄 1

20. 랄랄랄 2

21. 사랑해

22. 여기

23. 개양귀비

24. 그라시아스 2014

25. 단 한줄도 쓰지 않았다

26. 운구용 범퍼카

27. 입속의 길

28. 바셀린 심포니

29. 꿈의 전부

실비아 플라스

1. 레이디 라자러스 (Lady Lazarus)

2. 지원자 (The Applicant)

3. 아빠 (Daddy)

4. 세 여인 (Three Women)

5. 아침 노래 (Morning Song)

6. 간수 (The Jailor)

7. 매달린 남자 (The hanging man)

8. 메두사 (Medusa)

9. 달과 주목나무 (The Moon and the Yew Tree)

사체가 고양이처럼 벗겨져 일어나는 간지러운 부활의 순간에,
우리는 비밀스러운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글라야 페터라니가 말하길 천국에도 있을 ‘서커스’¹에서, 양효실 미학자가 말하길 ‘웃는 여자’²들이, 시를 읽는다. 공포영화의 여주인공들, 고양이이거나, 여자이거나, 사체이거나, 소년소녀이거나, 괴물이거나, 아이이거나, 엄마이거나, 혹은 오로지 시 읽는 몸들은 — 오려지고 끼워진 시어들에 혀를 굴리는 기예를 시작한다. 스스로 기워내는 기도이자 의식의 곡예를, 회전하는 세계의 모욕 속으로 ‘돌려보낸다’³.

배선희 배우는 ‘벗겨지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대낮에 방안으로 신이 기어들어온다. 헐벗었고, 아이처럼 올거나 웃고, 사랑 밖에는 할 수 없는 신이었다. 1부 <아홉 목숨>은 아홉 번 반복되는 「저 고양이들!」로 아홉 번의 생과 사에 구른다. 3m 너비의 정방형 모포 위로 도열된 “축제”는 사체, 서커스, 고양이, 그리고 풀숲을 설설 기는 뱀 없이는 소스라치게 아름다워지지 않는⁴ — 만개한 생의 들판으로 펼쳐진다. 김언희 시에서 갈라지는 시어들을 온몸으로 암송하는 수행이 갖는 ‘꽃의 경지’⁵는 난처하고도 우아하다. 회전문 속에서 도는 아주 특별하신 분이 보내신 꽃다발 위로 따뜻한 시취가 내려앉는다. 수치심을 저글링하는 비너스 푸티카, 미성년 같은, 벌레 같은, 일출 같은 몸이 가느다란 섹슈얼리티로 눕는다. 관음적인 저 고양이들, 저 축축하고 ‘여원’⁶ 몸은 입가로 침 흘리며 물음표로 기다린다.

손나리 연구자는 ‘회전공포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생에 그는 소년이었고, 히로시마에서 원자력 폭폭으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은 채로 죽었다. 그때 전정 기관에 입은 손상으로 인해 회전체에 대한 메스꺼움을 갖게 되었다. 그는 수직으로 선 3m 높이의 회전형 무대 앞에 선다. 2부 <부활하신 어머니>는 「레이디 라자러스」 전문 읽기로 향하는 날선 기차처럼 칙칙똑똑 달려간다. 열차 칸마다 실려 있는 것은 실실 웃는 어머니, 간단치 않은 어머니들이다. 마치 ‘놋쇠 황소’⁷ 안에서 허밍하고, ‘피폭된 마리아’⁸의 눈구멍으로 미소 짓는 어머니, 밀물과 썰물에 씻기는 고양이⁹ 어머니, 그리고 실비아 플라스로 오려낸 시어들 가운데서 오로지 온전하신 라자러스 어머니 — 황혼의 푸른 옷자락에 감싸여, 비스듬히 들썩거리는 뒷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다.

〈저 고양이들!〉은 맨얼굴을 드러내며 ‘여자’로 분(扮)하고, 시어를 가면처럼 쓰는 ‘고양이 교겐’¹⁰, 시어는 ‘잘린 머리’¹¹가 되어 무대 위로 등장한 몸을 사로잡고 ‘동물적으로’¹² 귀환시킨다. 내가 핸들을 조금 틀어 피해 지나간, 나도 모르게 죽은 걸 나도 모르게 또 죽인, 도로에서, 거리에서, 바다에서, 감기고 녹는 몸들이 망가진 발톱을 스스로 훑으며 되돌아온다. 고양이처럼 깨끗하게 입 벌리는 당신, ‘재현이 아닌 외상(外傷)으로서의 시’,¹³에 배꼽을 붙이고 천년 동안 젖어 있을 마리나, 너무 흘려서 부은 마리아의 시, 시, 시, 시울들¹⁴에 입을 맞춘다.

- 1 “천국에도 서비스가 있을까?” 아글라야 페터라니, 『아이는 왜 풀란타 속에서 끓는가』, 배수아 옮김, 워크룸프레스, 2021/1999
- 2 “누가 법·상징의 언어를 훼손할까요? 누가 인간화(humanization)에 모른 채로 저항할까요? 누가 어린 아이의 감각을 거의/겨우 빼앗기지 않은 채 성인의 세계를 건너가는 비인간, 포스트인간일까요? (...) 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린 것들, 이런 표현은 쓰다듬어주고 싶은 아이, 둘 표현과 같죠.” 양효실, 「웃는 여자, 보는 아이, 엮이는 유충들」, energywhoisshe.com/ko/Woman-Laughing-Child-Looking-Larvae-Intertwined.html; 『대화 비평』, 현실문화, 2025
- 3 두산갤러리 기획전 〈sent in spun found〉, 공동기획: 장혜정, 루미 탄(Lumi Tan), 참여작가: 차연서, 허지은(Gi Huo),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2025
- 4 “6월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풀숲을 설설 기는 뱀 없이는 소스라치게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김언희, 「호랑말코」, 『호랑말코』, 문학과지성사, 2024
- 5 일본전통연희 ‘노가쿠’ 연기 이론서인 『풍자화전(風姿花傳)』에서 연희의 비밀이자 전략이며 인과로서의 ‘꽃’의 경지, 그리고 그보다 높은 아름다움으로서의 ‘시들음’이 서술된다. 참고: 김학현, 『능: 노오의 고전 - 일본의 전통연극1』, 열화당, 1991
- 6 “... 그렇게 여위고, / 그렇게 마른 종족은 / 꿈 속에서만 있지 못하고, / 더 이상 머릿 속 축소된 나라에서의 / 기이한 희생자들로서만 남아 있지 못한다” 실비아 플라스, 『여윈 사람들』. 손나리, 『“눈 속의 거울 조각” :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의 “여름”的 시학』, 박사학위논문, 2009
- 7 ‘놋쇠 황소’ 혹은 ‘팔라리스의 황소’는 고대 그리스 시기에 고안된 음악적 고문 기구로, 내부에 사람을 넣어 가열하면 비명이 금관을 통해 소 울음소리로 변환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방식으로 처형된 가톨릭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유물은 발견된 바 없다.
- 8 우라카미 천주당(浦上天主堂) “피폭의 마리아”. 참고: 현대 노가쿠 공연 〈나가사키의 성모(Holy Mother in Nagasaki)〉, 다다 도미오 집필, 시미즈 간지 연출·주연, 2005년 초연
- 9 갯벌에서 부패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포획틀에 갇혀 익사했으며,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온 몸에 물이 찬 상태였다.
- 10 일본전통연희 ‘노가쿠’는 정방형에 가까운 특수 무대에서 ‘노’와 ‘교겐’을 번갈아 선보이는 형식을 갖는다. 위장된 것, 미친 소리, 도리에 어긋난 말, 실 없는 소리 등을 뜻하는 ‘교겐’은 엄숙한 가면극인 ‘노’와 다르게 맨얼굴을 기본으로 하여, 못생긴 여자, 늙은 여자, 그리고 신, 귀신, 미물들의 혼으로 분할 때 가면을 쓴다. 참고: 김학현, 『광언:교겐 - 일본의 전통연극2』, 열화당, 1991
- 11 “노가면은 자신의 잃어버린 신체를 끊임없이 되찾으려 시도하는 절려 나간 인간의 머리와 비교될 수 있다. 배우가 가면을 쓰면, 그의 신체는 가면에 사로잡힌다.” 최은아, 「침묵 언어의 번역과 망자의 회상을 위한 변신 - 다와다 요코의 『밤에 빛나는 두루미 가면』 연구」, 2021
- 12 “이러한 노가면의 특성은 이 작품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모든 가면이 동물 가면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것은 무겐노에서와 달리 다와다 요코의 작품에서 ‘잘려나간 인간의 머리’로서 되찾아야 할 신체가 바로 동물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최은아, 「침묵 언어의 번역과 망자의 회상을 위한 변신 - 다와다 요코의 『밤에 빛나는 두루미 가면』 연구」, 2021
- 13 양효실, 「언데드의 말, 시(詩)」, 김언희 시집 『호랑말코』 해설, 2024
- 14 “일회용 것가락으로 지그시 빌려보는, 이 상처의 모독의 시, 시, 시, 시들을.....” 김언희, 「허불허불한」, 『트렁크』, 세계사, 1995; 『트렁크』, 문학동네포에지, 2020시미즈 간지 연출·주연, 2005년 초연

배선희

배우. 글자를 전부 몸으로 받아들이고, 몸을 초과해서 쓰는 일을 해왔다. 별레 망상이 있고, 망상을 통해 만난 바퀴벌레를 사랑하고 있다. 고양이 추석, 포옹과 함께 산다. 연극 〈재생의 시간〉(2018), 〈플라스틱 새〉(2019), “2022 코미디캠프 : 파워게임”에서 〈비행기술 : 토미에 해방 의식〉,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젊은연극상 수상작 (조금 쓸쓸한 독백과 언제나 다정한 노래들)(2022), 〈구멍 난 밤 바느질〉(2024)을 쓰고 연기했다. 행위의 이중성과 모호성을 반영한 ‘시적연기설계’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손나리

실비아 플라스를 포함하여 시인들에게 생존을 빛진 어린 날의 경험을 계기로 영미 시 연구자가 되었다. 최근 『케이 템페스트의 힙합서사시 실험: 『아주 새로운 고대인들』의 신화적 성형』(2025)을 현대영미시학회에서 발표했고 글을 마무리 중이다. 에드거 앤런 포의 시 전집 『까마귀』(2018) 등을 번역했고, 영미 시를 강의하며 지낸다. 최근 몇 년 간은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증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렁각시가 대신 해 주고 있다고 느낀다. 편두통 때문에 명상을 배웠고 시와 명상을 결합한 인문치유강좌도 우렁각시가 고맙게도 담당해 주고 있다. 차연서 작가의 〈모스키토라바쥬스〉(2022)에 이어 〈저 고양이들!〉(2025)에서도 영시 낭독으로 참여한다.

차연서

김언희 시인의 맨드라미 같은 웃음을 부적처럼 지니며, 문 닫힌 방에서 법의학 책을 보고 재단가위로 종이 오리는 시간을 통과했다. 페이퍼컷 드로잉 연작 “축제”(2023-)를 만들고, 축제 오디세이에 둘러모이는 사체들, 친구들과 살아 있다. 닉종이에 추상화 그리던 아빠가 죽었고, 영미시를 읽으며 강의하고 글쓰는 엄마와 매일 같은 집으로 돌아간다. “저 고양이들!”을 대본으로 쓰니 풍선껌처럼 새콤달콤해지는 닉종이 절린 조각이 발바닥에 따라 붙는다. 올 봄부터 두 퍼포머를 초대하며 으시시하게 웃고 있다. 퍼포먼스 〈쥬시 모스키토〉(2022), 〈모스키토라바쥬스〉(2022), 〈황혼이 질 때면〉(2024)을 만들었고, 올해 〈저 고양이들!〉(2025), 그리고 〈봄밤〉(2025-2026)을 발표한다.